

# 무주 한풍루, 국가 보물 지정 예고

### 오래 역사성·희소성·예술성 등 가치 인정

무주 한풍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호남삼한(三寒 무주 한풍루寒風樓, 남원 관한루寒樓, 전주 한벽당 寒碧堂)중 으뜸으로 꼽히는 무주 한풍루는 ▲오래 역사성(조선 초 건립)과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관아누정'이라는 희소성, ▲목재의 조각수법과 입면의 비례 등 건축요소에서 확인되는 예술성과 특이성이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영동군으로 팔려갔던 누각을 다시 찾아와 세우는 등 문화재를 지키고 전통을 잇고자 했던 무주군민들의 의지 또한 지역에 남아 존중되고 기념해야 할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한풍루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켜낸 문화유산이자 역사의 흔적과 문화재 특성, 학술적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 보물"이라며 "군은 앞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조사·연구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한풍루(연면적 156㎡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누각 팔작지붕 건물, 이익공(二翼工양식)는 조선의 관아누정으로 여러 명사들이 즐겨 찾고 많은 시문을 남겨 놓은 곳으로 알

려져 있다.

'적성지'에 수록된 '아사누정기 한풍루조'에 따르면 1576년 백호 임제가 무주를 찾아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한풍루를 '호남제일'이라고 칭했다고 전해진다.

한풍루는 1592년 왜군의 방화로 소실됐다가 1599년 복설돼 1783년까지 보수, 중수과정을 거쳐 1910년 이후 불교 포교당과 무주 보통학교 공작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1936년에는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금강 변으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 한풍루복구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주민 성금모금을 통해 환수해 1971년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 내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건 과정에서 원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역사성과 건축성, 학술성이 뛰어난 누정 건축물의 가치를 높였다. '무주 한풍루'의 현관은 조선시대 명필 한호(석봉·보춘처리 후 다시 수장고에 보관 중)선생과 현대 송성용(강안)선생이 쓴 것이 있으며, 현재 한풍루에는 강안 선생(1913~1999)의 작품과 2002년 제작된 석봉 선생의 모자품이 걸려있다.

1973년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이 됐으며 2019년에는 무주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 신청을



무주 한풍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했으나 한풍루 원형의 변형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가 고증 요구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결이 된 바 있다.

이후 무주군은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한풍루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월 26일에는 '무주 한풍루'의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풍루의 역사와 가치', '한풍루의 건축 특성', '한풍루와 무주의 문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 건은 22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보를 통해 공고되고 30일 간 의견 수렴·검토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승격이 결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올해 사유림 288.5ha 매수 24억원 투입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상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육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4억원을 투입하여 사유림 288.5ha를 매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 400개 이상에 달한다.

매수하는 지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이다. 매수하는 산림은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림이거나 산림자원의 육성 등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유림을 산다' 코너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

오늘부터 75세 이상 대상 접종 시작

장수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종은 동의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의 종사·입소자 등 3,800여명을 상대로 연장자순으로 진행하며, 개별 접종일시는 접종 2~3일 전 유선으로 1차 통보된 뒤, 접종 하루 전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로 2차 통보된다.

접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단, 개인별 지정된 접종일이 아닐 경우, 사전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여서는 접종할 수 없다.

장수군은 교통 이용과 거동이 불편한 75세 어르신들을 위해 22일 장수읍, 23일 장계면, 26일 계곡면·재가노인시설, 27일 계남면·산서면, 28일 천천면·번안면 등 날짜를 지정해 읍·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접종 절차는 ▲체온측정 ▲사전예약 확인(신분증 필수) ▲예진표 작성(예진표 확인 및 체온측정) ▲대기 ▲예진(주의사항 안내) ▲접종 ▲전산등록(접종력 등록, 2차 접종일 안내) ▲관찰실(15분~30분) ▲확인서 발급 ▲귀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접종 후에는 접종부위 통증 및 부기, 오한·발열·피로감·두통 등의 경미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대부분 2~3일 내에 회복된다. 만약, 며칠간의 충분한 휴식 후에도 심각한 통증, 이상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교직원 및 간호 인력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30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보통재 도로개량사업 반영 총력

###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 찾아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피력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0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26호선 사고 다발 구간(진안 부귀~완주 소양) '보통재 도로(터널)개량' 사업이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일괄에 타기 통과되도록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사업 확정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 정책성 평가 등에 있는 가운데 전 군수는 국회를 방문하여 윤후덕 기재부 위원장, 이광재 기재부 위원, 김수홍 기재부 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다발구간인 보통재 터널사업이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국도 26호선인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은 1997년 무주통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통재 구간에 대하여 터널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예산부족으로 대절도,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이로 인해 도로 비탈면 붕괴와 급커브 구간의 설계속도(80~70m/hr)보다 미달된 최소곡선반경과 안화곡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진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소태정 터널개설 타당성조사(기존 도로 문제점 분석)자료를 통하여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시작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6년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사업은 총연장 L=2.98km(교량 334m/4개소, 터널 L=1.587m/2개소), 사업비 685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일괄예타 통과를 거쳐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최종 반영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은 물론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개량(터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 3개 단체 아동학대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

진안군은 지난 20일 무주 장수군 아동학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0일 실시한 권역별(무진장) 부단체장 소통회의에서 합의된 '학대피해아동 즉각관리 시행에 따른 권역별 공동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실무추진단(이하 실무단)은 단체별 아동현황(18세 미만)과 아동학대피해 건수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 진안군에만 3곳(상반기 중 1개소 추가설치)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 조성이 필요한 쉼터 등은 추후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주군과 장수군에 분산 설치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진안군에 1개소, 장수군에 1개소를 금년 내 추가 조성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쉼터'를 2023년까지 2개소를 권역형으로 설치 운영 ▲이들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3개군이 공동 대응해 나기로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계획대로 이행 될 경우 전국최초로 권역별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구축,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아동 대응시스템 구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호응'

무주군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세무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군에서는 황영훈 세무사와 여윤기

세무사, 김인수 세무사 등 3명의 세무사가 무주군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 직원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제 관련 세금문제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청구액 300만원 미만) 등 세금 관련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제51회 지구의 날 맞아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21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2일로 제정된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진안고원시정에서 지구 살리기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권했다.

홍보내용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실천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저탄소 생활 실천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기 실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등이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에 지구의 날(4월 22일)을 지정하고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4.22~28)으로 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 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초·중학생 원어민 1:1 영어 화상학습 지원

무주군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들의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지원(1:1 수업 / 수강료 6만2,400원 전액 지원)한다.

상·하반기 총 2기 과정으로 진행하며 1기 과정은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교육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생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수업은 레벨 테스트 후 A반(월, 수, 금요일 / 1일 20분)과 B반(화, 목요일 / 1일 30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 초(3~6학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 우선지원대상자 20명과 일반지원대상자 100명 등 기수당 120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